

# 물결인 듯 리듬인 듯...수십만 '점'들의 향연

**정송규 작가 무안군오송우미술관 초대전**

**'씨와 날의 기록-여성이 쓴 역사' 기획전**  
조각보 모티브 여성의 삶 형상화  
21일까지 대작 20여점 선보여  
여성 작가 3명 그룹전도 함께 열려



오는 21일까지 무안군오송우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 초대전에 출품된 '환희(De-light)'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송규 작가

6m70cm에 이르는 대작 '평온의 기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 보던 한 관람객이 동행에게 말했다. "와, 이걸 어떻게 손으로 다 그렸을까. 조금씩 색깔이 다 다르네. 눈도 아프고 팔도 정말 아파겠다." 1cm도 안되는 수십만개의 작은 '점'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녀의 작품을 들여다 보면 누구라도 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듯하다. 출렁이는 물결처럼, 리드미컬한 울동처럼 이어지는 그림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색깔과 어우러지며 사람을 몰입시키는 힘이 있다.

높은 천장과 자연 채광이 인상적인 무안군오송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정송규(74) 작가 초대전 전시작들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다. 정 작가는 미술관측이 기획한 '씨와 날의 기록-여성이 쓴 역사'에 초대받아 대작 20여점을 오는 21일까지 선보인다.

인물화 등에 몰두했던 정 작가는 지난 1997년부터 작품 테마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어머니로, 며느리로, 딸로 살아 온 인생을 더듬으며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낼 소재로 어머니들이 늘 다루던 '조각보'를 생각했다. '조각보'는 단순히 천을 이어 붙인 사물이 아니라 조각 하나 하나가 한 인간의 삶이고, 그 인간이 살아온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각기 작업은 조각보 등 규방에서 쓰는 물건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었다. 이어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를 소재로 삼아 추상적인 요소를 가미한 '어머니의 기도' 시리즈 작업에 매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보의 형태가 남아 있는 2011년 작 '어머니의 기도-지난 날 2'부터 추상적 느낌이 강한 2017년 작품 '바람소리' 시리즈까지를 시계별로 선

보여 작품 세계의 변화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정 작가의 작품은 씨실과 날실이 얽히듯 서로 중첩되고 어울리면서 다양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점'들의 향연이다. '환희(Delight)' 시리즈는 제목처럼 즐겁고 열정적으로 작업했던 작품이다. 붉은빛과 초록빛 등 화사한 색깔에서 시작된 작품은 검은색으로 넘어가며 색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여백의 미를 활용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등은 한참을 들여다 보게 만든다. 또 세월호, 국정농단 등 사회적 사건들을 떠올리며 작업한 '회억(回憶)'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정 작가는 "정해진 틀이 없이 어떤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다"며 "그 흐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수많은 짙어온 '점'"이라고 말했다.

조선대를 졸업하고 클리블랜드 아트 오브 인스티튜트를 수료한 정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작가전 등 1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현재 무등현대미술관장, 사립미술관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오송우미술관에서는 같은 주제로 여성 작가 3명의 그룹전도 함께 열리고 있다. 자신의 인고의 세월이 담긴 바느질을 회화 작업의 모티브로 삼아 추상작품으로 승화된 변경섭 작가와 빈집의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재와 고평이, 먼지 등 작은 존재에 주목하며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설아 작가가 참여했다. 또 여러 겹의 색을 두텁게 바른 후 다시 파내는 독특한 기법으로 거대한 꽃과 산수풍경을 만드는 선명주 작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1-450-5482~3.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공예명장 선정 기념 양계승 초대전

11일까지 K-water 주암 상사댐 물문화 전시실

도예가 금산 양계승 초대전이 오는 11일까지 K-water 주암댐관리단 상사댐 물문화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전라남도 제4호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열리는 초대전이다. 전남공예명장은 전남도가 지난 2012년부터 전통 공예기술 계승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순천 출신으로 1982년 경남 김해에서 도예에 입문한 양 작가는 지난 2004년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창작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도자기 만들기에 좋은 흙을 찾고 다채로운 유약을 개발하는 등 도전을 멈추지 않은 그는 전시에서 도자기와 찻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양 작가는 대한민국 공예대전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으며 금산도예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경인화랑 창



그릇전, 중국 운남성 공명문화원 초대전, 호주 한국문화원 초대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봄치녀' '봄비'...봄노래 함께 부른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9일 방울소리공연장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07회 공연이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농성동 서구청 뒤)에서 열린다.

이달에 배우는 노래는 백승희 시에 정덕기가 곡을 붙인 '사랑의 노래'다. 주제는 '영혼을 불태우는 찬란한 그대여'이며 이는 사랑의 대상을 표현한 가사의 일부이다.

이 노래는 작곡가 정덕기가 대학 3학년 때 지금의 아내인 백승희를 처음 만난 날 그녀에게서 가사를 받아 그 자리에서 작곡했다고 한다.

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로는 봄노래 '봄이 오면'을 시작으로 '봄치녀', '봄비' 등을 마련했다.

정다운 노래로는 '사랑의 노래', '나물캐는 치녀'를 선보인다. 마지막 사랑의 노래로는 '고향의 봄'과 '남촌'을 부른다.



유은경, 고재경, 서애숙, 김윤신, 김희숙 씨 등이 연주에 참여한다. 시낭송은 낭송가 양동률, 전경숙씨가 송수권의 시 '다산초당에서의 노을치마'를 낭송한다. 그밖에 초청연주로는 메조소프라노 박순영(사진)씨가 '물 보면 흐르고'와 '방향'을 선보인다.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서거 100주기 드뷔시 기리며...피아니스트 이혜경 리사이틀

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올해로 서거 100주년을 맞은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를 기리며 피아니스트 이혜경(사진)이 리사이틀을 갖는다. 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씨는 이화경향공쿠르에서 1등 입상 후 서울신포니에타와의 협연으로 데뷔했다. 이후 서울시향 청소년음악회, 한국 주네스 오케스트라의 정단공연에 솔리스트로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국내뿐

만 아니라 세계 여러 연주단체와 미국 케네디센터, 링컨센터를 비롯해 독일, 호주 등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고전 레퍼토리뿐 아니라 다수의 창작곡 초연 등 600여 회의 연주회를 통해 끊임없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피아노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Piano On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이씨가 선택한 곡은 드뷔시 자신만의 음악적 스타일이 확

고히 자리 잡은 그의 말년에 작곡된 작품들이다.

드뷔시의 '전주곡 1집'의 '텔피의 무희들', '꽃', '들방의 바람', '황혼에 감도는 소리와 향기' 등 12곡과 '영상 1집'의 '물에 비친 그림자', '라모를 찬양하며', '움직임', '2집'의 '일세를 흐르는 종소리', '황폐한 사원에 내리는 달', '금빛 물고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2만 원, 학생 1만 원. 문의 010-3975-022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시민인문학 31일까지 카페 '노블'서 53기 강좌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이달 31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53기 강좌를 연다.

월·수·목요일(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정규강좌는 문학, 철학, 인문학 강연이 펼쳐진다. 월요일에는 김청우 박사가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주제로 시작강좌를 연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신

우진 씨가 각각 철학스터디 '존재란 무엇인가?~새로운 리얼리즘의 물음'과 목

독연구회의 '목록히 책을 읽자-심심책'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특별강좌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의 '일본 원서로 읽는 철학용어도감'과 '일본 원서로 읽는 소설'이 예정돼 있다. 네이머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